

##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 경험

김미영<sup>1</sup>, 변은경<sup>2\*</sup>

<sup>1</sup>가야대학교 간호학과, <sup>2</sup>경남정보대학교 간호학과

### Experience of Adapt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the South Korean Society

Mi Young Kim<sup>1</sup>, Eun Kyung Byun<sup>2\*</sup>

<sup>1</sup>Department of Nursing, 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sup>2</sup>Department of Nursing, Kaya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남한사회 적응 경험을 포괄적이고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된 현상학적 연구이다. 자료수집은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로 하였고, 북한이탈주민 1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남한사회 삶의 적응 경험을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Colaizzi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총 10명으로 남성 5명, 여성 5명이었고, 나이는 40대가 5명, 50대가 5명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는 미혼이 4명, 기혼 6명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로부터 얻은 원자료에서 남한사회 삶의 적응 경험을 분석한 결과 180개의 본질적인 의미단위를 추출하였고, 본질적인 의미단위에서 19개의 주제와 6개의 주제모음, 4개의 범주로 구조화할 수 있었다. 4개의 범주는 '다른 세상 마주하기', '이방인으로 살기', '적응하기', '자아실현하기'였다. 6개의 주제모음은 '새로운 세상을 만남', '심리적인 고통', '현실의 벽', '남한사회에 표류', '남한 사람이 되어감', '주체적인 삶'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 경험에 대한 반복연구와 남한사회에서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is a phenomenological study attempted to examine adapt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to life in the South Korean society in a comprehensive and in-depth way. Data were collected from July 2016 to June 2017 by conducting interviews with 10 North Korean defectors about their experience in adaptation to life in the South Korean societ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the Colaizzi method. The original data obtained from the participants were structured into 19 themes, 6 theme clusters and 4 category. The 4 category included 'to face the different world', 'lives as a stranger', 'to adapt something', 'to reach self-realization'. The 6 theme clusters included 'encounter with new world', 'psychological pain', 'obstacles of the reality', 'drifting in the South Korean society', 'becoming a member of South Korea' and 'an independent lif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ould be necessary to conduct a repetitive study on the process of adapt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to life in the South Korean society, to develop an intervention program to help them adapt to the South Korean society, and to verify the effects of the developed program.

**Keywords** : Adaptation, Colaizzi, North Korean defectors, Qualitative research, South Korean society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폐쇄적이고 전체주의 국가인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라나 북한 주민으로써 살다가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1]은 남한사회에서의 적응과정에서

\*Corresponding Author : Eun Kyung Byun(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Tel: +82-51-320-1459 email: bekr@eagle.kit.ac.kr

Received October 4, 2018

Revised (1st November 13, 2018, 2nd December 10, 2018, 3rd December 13, 2018)

Accepted February 1, 2019

Published February 28, 2019

문화적 이질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 언어생활과 문화생활에서 일차적인 어려움을 겪는다[2]. 특히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부족으로 처음에는 남한에서 풍족하고 자유로운 삶을 누릴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와 이로 인한 좌절감을 경험하게 되고, 문화적 배경의 차이를 인식하면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3].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정부와 학계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있어 언어생활의 어려움[4], 경제적 어려움[5-6], 정신건강 문제[7], 상대적 박탈감[8], 편견과 차별경험[9] 등의 부적응을 겪고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최근 20여년에 걸쳐 남한사회에 생활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북한 이탈주민과 남한 주민의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이나 직업적인 관계를 통해 사회적 작용을 할 기회가 많아졌다[10]. 이러한 기회는 남한 사람들이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이중적이고 차별적인 태도로 이들 상호간의 미묘한 사회적, 심리적 거리감을 형성하게 되었다[11]. 이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 이탈주민을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무기력한 존재나 정부의 지원과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등 남한사회에 무조건적으로 적응해야 하는 타자로 보는 시각들도 존재하게 되었다[12].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의 적응과정에 대한 관련 요인이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표준화된 설문지를 사용한 양적연구가 적절할 수 있으나 새로운 남한 정착지에서 각 사람이 체험하고 있는 미세하고 복잡한 감정, 의식의 변화들은 설문 척도로 그 의미를 담아 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1]. 즉 모든 사람의 통계적인 평균으로 분석할 때 각 개인의 ‘고유성’과 변화과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13].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주관적인 남한사회 적응 경험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그들의 언어와 표현으로 듣는 것이 중요하므로 심층적이고 탐색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의 적응 과정에 대해 체험한 의미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은 남한사회 적응 경험에 대한 현상의 본질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유입하는 숫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로 남성 주민[11], 여성[14-15], 의식변화[1], 남한 주민과 교류경험[10], 40대 대상[16], 지역사회적응[17] 등

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대상자의 제한이나 일부 주제의 경험으로 함축하는 것은 남한사회 적응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 경험에 대해서는 Eom[18], Pyun[19]의 연구만 이루어져 성인의 남한사회 적응 경험에 대한 연구는 다소 부족하다. 무엇보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 경험을 살펴보는 것은 적응과정에서의 의식의 변화를 예측하고, 부적응의 과정을 최소화하며,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하여 남한사회의 적응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의 적응에서 그들은 어떻게 경험하고, 적응하였는지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그 의미를 탐구함으로써 남한사회에서 적응을 도울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1.2 목적

본 연구는 남한사회에 생활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적응에 대한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주관적인 경험세계를 총체적으로 통찰하고 해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에 대한 경험을 파악하여 남한사회의 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질문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에서 적응 경험은 무엇인가?”이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남한사회에 생활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적응에 대한 생생한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자의 직관, 분석과 기술을 통해 탐색하는 Colaizzi[20]의 분석방법을 적용한 현상학적 연구이다.

### 2.2 연구 참여자와 윤리적 고려

본 연구 참여자는 B시와 G시 지역의 통일관을 이용하는 3년 이내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자는 자료수집에 앞서 K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하였다(IRB-47). 연구 참여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면접에 임하기 전에 연구자 자신을 소개하고,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였으며, 면담내용을 녹음할 것과 예상 면담 시간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제

공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원할 경우 언제라도 참여를 중단할 수 있고, 질문에 응하고 싶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아도 됨을 설명하였다. 연구 자료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개인적인 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모든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에 보관할 것과, 연구의 결과가 출판될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연구가 종료된 시점부터 3년간 보관 후 파쇄기를 사용하여 폐기됨을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는 면담 후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였다.

### 2.3 자료수집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로 하였고, 연구자가 통일관을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담당자로부터 소개를 받은 후 남한사회로 이주한 지 3년 미만인 자를 의도적으로 표출하는 편의 추출을 사용하여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면담은 연구자가 사전 연락을 통해 약속된 시간에 대상자가 편하게 생각하는 장소나 연구자의 연구실에서 심층면담을 통해 모든 자료를 직접 수집하였다. 1차 심층면담에서 한 사람당 면담 시간은 1시간 30분에 걸쳐 이루어졌고, 2차 면담은 부족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50분에 걸쳐 진행되었고, 3차면담은 대상자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및 자료의 포화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1시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연구자의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하여 판단중지 기법을 활용하여 연구자가 원하는 답을 유도하거나 암시를 주지 않았다. 연구의 주요 질문은 비구조적 질문으로 “남한사회에서 적응 경험은 무엇입니까?”이었다. 하위 질문으로는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겪었던 경험은 무엇입니까?”, “남한사회에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로 모든 참여자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였으며, 면담내용 및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질문을 진행하였다. 1차적으로 분석된 자료에 근거하여 잠재된 범주와 새로운 의미단위, 경험단위를 탐색하기 위한 질문으로 이론적 표집을 해 나가며 자료수집과 분석의 순환과정을 거쳐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는 포화상태라고 판단된 후 자료 수집을 종료하였다. 모든 면담내용은 그대로 녹취하여 분석에 이용되었다.

### 2.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자료의 분석은 Colaizzi[20]의 현상학적

분석절차를 적용하였다. 면담 시 녹음된 원자료는 참여자별로 구분하여 필사하였다. 면담 내용의 필사본을 읽으면서 참여자의 경험의 본질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나 참여자들 간에 반복적으로 진술되는 내용에서 참여자의 느낌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참여자가 진술한 내용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의미있는 문장과 구절을 추출하고 탐구하였다. 추출된 주요 진술 또는 구절들로부터 의미를 구성하기 위해 각각의 맥락 속에 숨겨진 의미를 한 단계 더 추상적인 진술로 구성하였다. 구성된 의미는 2명의 연구자가 함께 확인하고 공통된 의미를 중심으로 180개의 의미단위 문장을 형성하여 하위 주제로 분류하였고, 그 안에서 의미와 맥락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2명의 연구자가 분류된 의미들을 묶어 주제를 조직하고, 주제를 묶어 주제모음으로, 주제모음을 묶어 범주로 조직하여, 19개의 주제와 6개의 주제모음, 4개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 적응 경험에 대하여 Colaizzi[20]의 현상학적으로 분석하고 6개의 주제모음[15], 4개의 범주로 나타낸 결과를 기초로 포괄적으로 기술하였다.

### 2.5 연구결과의 질 확보를 위한 노력

본 연구는 Cuba와 Lincoln[21]이 제시한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였다. 사실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심층면담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경험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면담을 하는 동안 모호한 진술이 있는 경우 참여자에게 다시 질문하여 진술의 의미를 확인하였다. 자료분석 시 참여자의 진술을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연구자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상호점검을 통한 공통된 의미를 발견하였다. 최종적으로 확인된 주제모음, 주제, 하위주제에 대해서 참여자 10명에게 반영적 읽기를 하여 자신의 경험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연구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참여자 개인의 의미있는 진술에 대해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주제의 본질적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고, 각 참여자의 진술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도출되지 않을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고 심층 기술하였다. 일관성 확보를 위해 자료에서 발견된 주제와 범주에 대한 분석적 사고와 지속적 비교방법을 통해 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배우고 연구한 경험이 있는 간호학과 교수 2명에게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주제모음, 주제의 서술과 주제의 적절성, 신리

도와 타당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연구자의 분석과 비교하여 수정하였다. 연구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들 간에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대한 이해를 논의하고 검증함으로써 연구자의 주관성이 면담과정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

### 3. 연구결과

참여자 총 10명으로 남성은 5명, 여성은 5명이었고, 나이는 40대가 5명, 50대가 5명이었다. 결혼상태는 미혼이 4명이고 6명이 기혼이었다<Table 1>.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 경험을 분석한 결과 180개의 본질적 의미단위, 19개의 주제, 6개 주제모음, 4개의 범주로 도출하였다. 4개의 범주는 ‘다른 세상 마주하기’, ‘이방인으로 살기’, ‘적응하기’, ‘자아실현하기’였다. 다른 세상 마주하기의 범주는 ‘새로운 세상을 만남, 이방인으로 살기의 범주는 ‘심리적 고통’, ‘현실의 벽’, ‘남한사회에 표류’, 적응하기 범주는 ‘남한사람이 되어감, 자아실현하기 범주는 ‘주체적인 삶’의 주제모음으로 도출되었다<Table 2>.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0)

NO	Gender	Age	Marital status in South Korea	Education in North Korea	Religion in South Korea
1	F	42	Married	≥College	No
2	F	43	Unmarried	High	No
3	F	45	Married	≥College	Yes
4	F	52	Married	High	Yes
5	F	51	Unmarried	High	Yes
6	M	44	Unmarried	≥College	Yes
7	M	48	Married	≥College	Yes
8	M	53	Married	≥College	Yes
9	M	54	Married	High	No
10	M	54	Unmarried	Middle	Yes

#### 3.1 다른 세상 마주하기

북한이탈주민이 탈북하여 만나게 된 남한사회는 자신들이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으로 다른 세상 마주하기는 ‘새로운 세상을 만남’을 의미했다.

#### 3.1.1 새로운 세상을 만남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사회에서 가장 먼저 접한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인간으로 대우 받는 것과 자유를 경험하였다. 또한 자신의 신체를 돌보게 되면서 건강과 안위를 누릴 수 있었다.

#### 인간다운 삶을 알게 됨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사회에서 북한과 탈북과정에 서와는 다른 인간다운 대우를 받게 된다. 집단의 소모품으로 취급받던 그들은 남한사회에서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고, 참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하나원에 들어오니깐, 북한에서는 조국을 위해 살았는데, 여기는 나를 위해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울었어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를 들을 때 다 같이 울고, 남아있는 가족들 격정하고..(참여자 5).

고난의 행군은 누구나 겪는 아픔이거든요. 인간다운 대접을 못 받다가 여기서 먹고 자는 거, 생활용품도 주고, 북한에서는 이동증을 발급받아야 자유롭게 다니는데, 여기는 그냥 나가서 회도 먹고, 여기 기관의 절대 권력자가 나한테 신경 써주고, 거기에서는 복종, 뇌물 그랬는데.. (참여자 7).

#### 자신의 몸을 돌보게 됨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서 삶을 위협하는 굶주림과 질병, 탈출과정에서 겪은 고초로 인해 신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남한사회에 들어오면서 의료비 지원과 건강상태 점검 등을 통하여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자신의 몸을 돌보게 되었다.

의료비를 지원해 주니깐, 신체건강은 금세 되찾게 되더라구요(참여자 1).

잘 먹은 게 없으니깐 기본적으로 건강상태가 나쁘니다. 여러 검사를 해도 잘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도 원하는 치료를 받으면서 신체부터 돌보고 있습니다(참여자 8).

#### 3.2 이방인으로 살기

이방인으로 살기의 의미는 ‘심리적인 고통’, ‘현실의 벽’, ‘남한사회 표류’로 나타났다. 북한사회와는 다른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은 힘들고, 어려웠다.

#### 3.2.1 심리적인 고통

탈북 과정에서 남한사회에 가족이 함께 오지 못한 경

우와 탈북과정에서의 고통스런 기억과 상처는 남한사회 적응의 어려움 속에 지속적인 상처로 남았다.

### 남겨진 가족에 대한 죄책감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사회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운 삶을 누릴수록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 친지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몸은 편안하지만 북한에서 고생하고 있을 가족에 대한 생각으로 남한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혼자서만 잘 살고 있으니깐, 내가 못 해 준 게 생각이 나고 나 때문에 지금 더 곤혹스러운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참여자 7)

연대책임이라서, 지금 돈을 준비하고 있는데 고생할 것 생각하니 미안하고 눈물이 자꾸 흘러서(참여자 9).

심장에는 문제가 없다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가슴이 답답한 게 북에 있는 가족을 생각해서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마음을 뚫고 또 뚫고 다듬고 했습니다. (참여자 10)

### 아물지 않는 상처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과 탈북과정에서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면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남한 사회로의 탈출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과 아픔은 감당하기 힘든 아물지 않는 상처가 되어 있었다.

그 뒤가 문제예요. 긴장은 계속 되니깐, 잠도 안 오고 해서 수면제를 먹었어요. 수면제를 먹으니 일을 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잠을 잘 못 자는 기억들, 감정들이 문제라서...(한숨) (참여자 1).

오기 전에 탈북하다가 감옥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죽는 걸 너무 많이 봐서 총 맞고 죽는 장면을 자꾸 꾸니깐. (참여자 2).

강을 건너다가 놓쳐서 어떻게 된지도 몰라요. 계속 꿈에 나타나니깐...(참여자 10).

### 3.2.2 현실의 벽

북한사회와는 사회, 문화, 환경적 차이뿐만 아니라 언어, 일상생활, 대인관계 등에서도 너무나 다른 사회를 마주하면서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르고, 더 힘든 현실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 기대와 다른 현실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사회에 정착할 때 삶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았으나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과 잘못된 인식이 만든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짐으로 실망과 좌절을 느꼈다.

생각하고는 달라요. 다 잘 사는지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참여자 1)

남한은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목숨을 걸고 나온 곳인데, 여기에 온 것을 남한이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처음에는 많이 했어요.(참여자 5).

북한에서 10년 일을 했는데, 착취만 당하고, 여기와서는 일도 하고 급여를 받는데, 언제 돈 모아서 좀 살겠습니까? 그래도 북한에서는 좀 대우를 받았던 직종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인정이 안 되니깐.....내가 하찮은 존재가 되버리더라고요. (참여자 8)

북한에서는 항상 남한 사람들이 아주 잘사는 집에서 살고 있는 것만 드라마에서 보고 있었다가, 내가 남한에 들어오자 정작 나에 게는 12평 임대주택이 주어지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참여자 10)

### 낮선 현실 속에 던져짐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공산주의 체제와는 다른 남한사회에서 다양한 사회적인 기준과 절차, 공공기관 이용 방법과 서류양식, 정보화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 더 나아가 취업하고 적응하기 까지 수많은 어려움들이 산재해 있었다. 무엇보다 같은 민족이지만 언어의 이질화는 남한사회의 적응에 더 많은 한계를 느끼게 하였다.

여기 생활을 따라 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북한에서는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알아서 신고해야 하는 것도 많고, 서류도 복잡하고, 통신도 힘이 들고, 익숙해지니깐 좋더라고요. 그 전까지 힘들었어요. 같은 말인데 못 알아듣고,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쳐다보고(참여자 2).

북한에서 배운 거는 다 소용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다 시 배우는 것과 같았어요. 아니 더 어려웠어요. 기준에 하던 방식이 있으니깐...(참여자 3).

북한에서는 직장에서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커피를 타다 주거나 뭔가 비위를 맞추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남한에서는 회사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알아서 하는 것들이 있으니깐 하지 않으면 눈치가 보이

고 압력이 있었어요. (참여자 7)

### 3.2.3 남한사회에 표류

남한사람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의 국적을 가졌어도 북한사람으로 대우하고, 이로 인해 같은 민족이면서도 이방인 대우를 받아 차별을 당하는 경험을 하였다. 또한 가족이 함께 하지 않는 경우는 남한사회에 속한 국민이 되지 못하고 걸도는 경험을 하였다.

#### 남한사회 속에서 북한 사람

북한이탈주민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분명한 ‘남한사람’이지만, 남한사회에서는 ‘북한 사람’이었고, 북한사람을 대표하거나 북한사람으로 인식되어 공격을 당하는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였다.

북한 미사일 발사가 뉴스에 속보로 나오기만 하면 저는 북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구요. 전쟁을 일으키려는 북한인이며, 도발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으로 취급되며, 그 순간 북한에서 감시당하는 느낌이 되살아나... (참여자 7)

한번씩 북한에 대해 무심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기억이 나니깐, 순간 멍하게 됩니다. (참여자 9)

#### 북한출신이라 느끼는 차별

북한이탈주민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이 탈북자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 남한 사람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남한 사람과는 다른 이방인으로 차별을 받았다.

유치원에서 우리 아이가 남한 아이하고 싸웠는데, 우리 아이만 벌을 썼어요. (참여자 4)

고향이 어디냐고 해서 북한에서 왔다고 하니깐 찬바람이 썰썰 불고, 말투가 싹 바뀌는 것을 봐서 무시, 차별 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참여자 6)

중국에 두고 온 아이를 한국에 데리고 오기가 싫어요. 여기서 학교에 가면 우리 아이는 차별 당하고 매를 맞을 가봐 걱정이 되요. 남한에서는 학교 폭력이 심하고 아이들에게 돈을 뜯어낸다는 것도 들었거든요. (참여자 7)

한번 탈북자에 대해 간첩, 뉴스 등에서 한사람에 대해 보도하고 나면 한국사회 전체적으로 저렇게 못 된 것만 한다고 말하더라구요. (참여자 9)

#### 쫓겨버진 가족

북한이탈주민 중에 가족이 북한이나 중국에 있을 경

우에는 남한 사회에서 사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고, 가족이 함께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가족과 다 같이 와서 걱정이 없어요. 제가 먼저 오고 그리고 중국에 남아 있던 가족이 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가족들이 북한에 있으니까, 돈을 모아요. 돈을 주고 데리고 오려고... (참여자 3)

가족이 아직 북한에 있어요. 돈을 좀 보내고 있는데, 중간 중간을 걸쳐야 하니깐 돈 전달이 얼마 안 되어서 미안하고, 나만 잘 있는 것 같아서...그래도 지금 천만원 모아서 돈을 더 모아서 함께 살아야죠. 그것만 바라고 있어요. (참여자 4)

### 3.3 적응하기

적응하기는 남한사회에서 남한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남한사람이 되어 감’으로 나타났다.

#### 3.3.1 남한사람이 되어감

남한사회에 적응하며 남한사람이 되어가는 것은 남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삶의 방식을 닮아가고, 종교로 안정을 얻기도 하고, 스스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 적응하고 있었다.

#### 남한 사람처럼 생각하기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의 민주주의 사회를 경험하면서 국가와 가정에 대한 생각이 북한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신들도 남한 사람처럼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음을 깨닫고 있었다.

우리는 한마디도 토를 안 달고 살았는데, 여기는 해야 될 말을 해야 하더라구요. (참여자 7)

여기서는 절대적인 아우라가 없어요. 대통령, 가장, 선생님 등 뉴스에 나오는 것 보면 사람들이 북풍이 절대적이지 않아요. (참여자 8)

#### 삶의 방식을 닮아감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서 공동생활로 집단 중심에서 남한의 개인주의를 경험하면서 처음에는 이질감과 불편감도 느꼈지만, 남한사회의 문화의 장점도 발견하면서 적응하고 있었다.

북한에서는 답습해서 행동을 많이 했는데, 여기 병원

에서는 같은 병실에 있어도 담당의사가 다르더라고요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각자 전문성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비실용적이라 생각했는데, 잘 모르는 의사가 보는 것이 안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뒤로 저도 유명한 의사 물어보고 했어요 (참여자 2)

여기서는 집단에서도 개인이 위주잖아요. 북한에서는 개인이 없고 집단만 있거든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런 행동이 곳곳에 나타나거든요 커피를 각자 계산하고 처음에는 사주는지 알고 기다렸는데.. 다 분배해서 아닌 걸 알았어요 오히려 편하기도 해요 (참여자 7)

### 종교로 안정을 얻음

북한이탈주민들은 종교를 가지지 않았던 북한에서의 생활과는 다르게 남한 사람처럼 종교를 가지고, 정서적인 어려움을 종교적인 힘으로 극복하고 있었다.

대인관계가 힘들었는데, 같은 탈북자들이 교회를 권유해서 다녔어요 처음에는 도와주니깐, 도움 받으려고 다니다가 기도하고 내 스스로 하나님한테 빌면서 정서적인 안정이 되어서 계속 다니게 되었어요 (참여자 2)

정서적인 안정을 교회에 가면서 찾게 되었어요 죄가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니깐 행복해지는 것 같았어요 (참여자 5)

### 스스로 인간관계를 맺음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스스로 자연스런 대인관계를 맺어 필요한 도움을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남한사회에 적응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었다.

하나원, 남북하나재단, 취업센터, 복지재단 등 다 달라요 많이 알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모르면 못 받아요 같이 온 사람 중에 시청에 공무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어보고 하면 정보를 알려주고 그래서 도움을 받고 있어요 (참여자 4)

처음에는 모임에 안 나갔는데, 우리들끼리 하는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 나가면 북한에서 한의사 하던 사람도 있고 그래서 경육고도 받고 아는 만큼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참여자 6)

### 시행착오를 통해 나아감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에서 필요한 낯설고 습득하

기 어려운 일상생활, 사회적 활동, 직장생활, 직장 적응 기술 등을 시행착오를 거쳐 조금씩 깨달아 알게 되고, 배우면서 익숙해지고, 이를 통해 남한사회에 적응해 가고 있었다.

북한에서는 직장이 곧 국가라서 죽어가도 그냥 해야 하는 반면에, 남한에서는 하루 일 가지 않고 쉬다가 일이 없어지든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해서, 누가 쉬자할 때 따라쉬는 게 답이 아니더라고요 (참여자 1)

기술을 배워야 취업이 되는데, 여기서 배우려고 하니 어렵고, 다른 사람 행동 따라하기도 하고 부딪치면서 그때 그때 배워서 했어요 (참여자 6)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거, 선거하는 거, 돈 따로 내는 거, 비싼 커피 사 마시는 거 처음에 뭘 것िया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하고 있더라고요 (참여자 7)

## 3.4 자아실현하기

자아실현하기는 남한사회에서 단순한 적응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살게 됨(주체적인 삶, 주체적으로 살게됨)’으로 나타났다.

### 3.4.1 주체적인 삶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에서 단순한 적응을 넘어 남한사회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자신의 삶의 방향도 찾아가며,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게 되었다.

### 내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봄

북한이탈주민은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노력한 만큼 성취해가는 사회를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남한 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인식의 변화를 나타냈다.

제가 편해지니깐 불만만 계속 이야기를 했나봐요 그리고 보니 어느 순간 모든 게 불만이더라고요 그런데 불만으로 세상으로 보면 계속 그렇다는 말에 제가 생각을 다시 하게 되니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나아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버릇에 간을 빼먹지 나한테 밥을 얻어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남한 사람이.. 내보다 어려울 수도 있겠다 생각하니깐 괜찮아졌어요 (참여자 5)

매일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기로 했어요 이렇게 사는 것도 북한 보다 나은데, 자꾸 기대려고 하고 신세지려고 했는데, 이제 당당해지려구요. 집사님이 자녀들에게 무얼 유산으로 줄 거냐고.. 신세지는 사람이라고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도 당당해져야겠죠 (참여자 10)

**한국인이라는 자아상을 가짐**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의 국적을 초월하여 대한민국인, 한국인으로 살아가려는 자아상을 형성하며 남한 사회의 일원임을 자각해 가고 있었다.

남북통일이 되지 않았지만, 저는 마음으로는 남한 구성원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자꾸 함께 하다 보니깐 좋아지네요 (참여자 1)

한국인처럼 부당한 대우에 이야기했어요. 한국사람들은 미국, 중국에 유학을 많이 보내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자녀도 유학 보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참여자 7)

이제 한국인이잖아요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받을 때 감격이었어요 여권 국적에 대한민국 되어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다녀왔어요 돈을 처음 모아서 내 소유의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등록증에 내 이름이 나와 있을 때,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참여자 9)

**아픔을 다스리는 힘을 얻음**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의 외상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고,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극복해 나가려는 모습을 통해 아픔을 다스리는 힘을 얻고 있었다.

심리적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심성치유 프로그램, 지역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참여하고 나면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을 배워요 (참여자 5)

신체에 통증도 있고, 정신도 우울하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더 아파서 무엇이든지 움직이고 그러면 좀 나아져요 한번 하고 나면 안 되고 정기적으로 움직이고 무엇이든 하는 게 중요하죠 (참여자 7)

**다시 희망을 찾게 됨**

북한이탈주민은 점차 남한사회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되면서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희망을 찾아가고 있었다.

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서...(중략) 애 만큼은 자유 대한민국을 살게 해 주고 싶었어요 (참여자 7)

하늘을 쳐다 본 적이 없는데, 파란하늘을 봤어요 너무 좋았는데, 파란하늘이 잠시 무서웠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하늘이 다 덮어주는 것은 아니고, 레스토랑 갈 때 라면 먹고 하니깐 마음이 한 없이 우울해지고..그런데 통장에 돈이 좀 모여서 다음에 무언가 할 수 있다 생각 하니 다시 하늘이 좋았어요 (참여자 9)

남한에서 주는 돈으로 안 되니깐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하는데...한만큼 벌 수 있는 것은 너무 좋아요 월급이 100만원인데 120만원이 지급되어서, 돌려주려고 했는데, 야근수당이라고 너무 고마워서... 내년에는 후년

Table 2. Analysis Experience Adapt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the South Korean Society (N=10)

Category	Clusters of themes	Themes
To face the different world	Encounter with new worl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ame to learn about humane life</li> <li>• Started to take care of oneself</li> </ul>
	Psychological pa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ense of guilt about family members left behind</li> <li>• Open sores</li> </ul>
Live as a stranger	Obstacles of the rea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he reality different from expectations</li> <li>• Placed in the middle of the unfamiliar</li> </ul>
	Drifting in the South Korean socie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orth Korean in the South Korean society</li> <li>• Discriminations against North Korean defectors</li> <li>• Family split up</li> </ul>
To adapt something	Becoming a member of South Kor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hinking like South Koreans</li> <li>• Moving on through trials and errors</li> <li>• Feeling secured through religion</li> <li>• Conforming to the lifestyle</li> <li>• Voluntarily forming human relationships</li> </ul>
To reach self-realization	An independent lif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ositive view on one's life</li> <li>• Self-image as a South Korean</li> <li>• Gained power to manage pain</li> <li>• Found hope in life once again</li> <li>• Discovered the true self</li> </ul>



에는 더 좋아지겠죠 (참여자 10)

#### 참된 자신을 발견함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의 잠재력을 찾아내고, 삶에 대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삶의 참다운 의미도 찾아가고 있었다.

나도 모르고 있던 잠재력을 개발하게 되었어요. 손재주가 좋아서 배우다 보니깐, 나도 꿈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우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보니 어렸을 때 꿈이 있었는데... 나도 사람이었는데... 그런 꿈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제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었어요 (참여자 2)

### 4. 논의

본 연구 참여자가 탈북하여 남한사회에서 적응 경험은 19개의 주제, 6개 주제모음, 4개의 범주로 도출하였다. 4개의 범주는 ‘다른 세상 마주하기’, ‘이방인으로 살기’, ‘적응하기’, ‘자아실현하기’였다. 전체 180개 의미단위 문장에서 이방인으로 살기 범주는 82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적응하기 범주가 41개, 자아실현하기 38개, 다른 세상 마주하기의 범주는 19개로 나타났다. 다른 세상 마주하기 범주는 ‘새로운 세상을 만남, 이방인으로 살기의 범주는 ‘심리적 고통’, ‘현실의 벽’, ‘남한사회에 표류’, 적응하기 범주는 ‘남한사람이 되어감, 자아실현하기 범주는 ‘주체적인 삶의 주제모음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한사회 적응 경험이 점차 변화되었음을 나타낸다. 남한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의 적응 경험이 변화하고, 그 변화를 통해 자기 성장과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주제모음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 번째 범주 다른 세상 마주하기의 새로운 세상을 만남은 연구 참여자가 남한사회에 와서 북한사회에서는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었다. 북한사회에서는 자신이 조국을 위해 존재하고, 조직의 부속품으로 여겨졌으나 남한사회에서는 인간다운 삶과 자신의 몸을 돌볼 수 있는 경험을 하였다. 이는 자신에 대한 인식변화와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인식함의 결과[1]와 유사하다. 북한사회와는 다른 세상 남한사회를 만남으로써 자신의 존재가치의 소중함을

을 깨닫는 경험을 하였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가장 중요한 중재는 남한사회가 북한사회와는 다른 세상으로 인간 존재에 인정과 존중으로 향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과 적응에 있어 우선적인 중재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남한사회에서의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인간다운 삶, 자신이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인식하는 과정은 남한사회에서 자신의 대한 자존감을 높이고, 자립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두 번째 범주 이방인으로 살기의 심리적 고통은 연구 참여자가 탈북하면서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과 탈북과정에서의 고통스런 기억이 심리적 고통으로 남아, 남한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되었다. 자신은 남한사회에서 자유와 편안함을 누리지만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과 아물지 않는 고통스런 기억은 남한사회에서 가장 큰 부적응의 요인이 되고 있었다. 남한 정착과정에서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걱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22], 이는 외상사건에서 부터 최초의 어려움을 초래하고[23], 남한 적응에서 재차 어려움[22-23]을 발생시킨다는 것[24]과 유사하다. 북한이탈주민은 불법체류자로서 숨어서 살아왔던 삶, 가족의 흠어짐, 절망감, 체포의 공포, 중국 친지들의 배척, 폭력의 경험 등 수많은 정신적 외상으로 인해 남한에서도 불안, 우울, 소외감, 정체감 혼란 등의 이주로 인한 상실을 상당히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결과[14]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자신이 경험한 사건을 해결하여 미해결된 감정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지 않도록[26] 중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상담, 심리적 지지, 사회적 지지 자원의 연계를 통해 지지와 외상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범주 이방인으로 살기의 현실의 벽은 연구 참여자가 탈북하여 남한을 선택했을 때의 기대와는 다른 현실 앞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이동과정의 경험이 미해결되어 자신의 실체와 이상간의 괴리가 큼으로 일상회복이 어렵다는 결과[18]와 탈북과정에서의 이상과 탈북 후 현실사이의 갭(Gap)이 나타났다는 결과[15]와 유사하다. 또한 Pyun[19]의 연구에서 두루미가 여우의 밥상에 먹음과 유사하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체제와는 완전히 다른 체제에 적응에서 겪게 되는 물질적, 정신적 어려움과 체제상 다른 남북한의 구조적 요인, 트라우마 발생원인, 대인관계 형성과정 등에서 어려움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결과[17]가 이를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는 연구 참여자가 남한사회에서 모든 게 익숙하지 않고 새롭고 처음인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게는 한국사회의 적응을 위해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준비뿐만 아니라 기대와 현실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훈련을 통해 남한사회의 정착을 도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 범주 이방인으로 살기의 남한사회에 표류는 남한사람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남한사람으로부터 북한사람으로 인식되고, 스스로도 남한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표류하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또한 떨어져 있는 가족으로 인해 반쪽으로 살아가는 것은 남한사회에 완전하게 적응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남한사람이 북한이탈주민을 보는 시각이 단순히 북한에서 온 것보다 북한 정권에 대한 불안이나 증오 등이 북한이탈주민에게 투영되는 것[15]으로 남한사람과 북한사람의 문화적 융합과정에서 심각한 대립과 문화적 충돌 및 갈등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남한사회는 북한이탈주민을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남한사회에서 동등하고 평등한 국민으로 대할 수 있는 자세가 정립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개선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통일이 심각한 문제로 등장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27]는 남한사회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참여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야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역사회 모임, 탈북단체, 사회 단체참여 등 정부, 종교 시민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유도가 남한사회의 적응을 도울 뿐만 아니라 남한사회에서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세 번째 범주 적응하기의 남한사람이 되어감은 남한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남한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노력을 계속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쳐 점차 적응을 하고 있었다. 또한 심리적 부담감과 사회적 지지를 종교를 통해 얻고 있었고, 스스로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적응해 가는 경험을 하였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속적으로 남한사회에 맞추어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였고, 자신의 변화를 시도하면서 남한사회에 맞추려는 자신과 지속적으로 타협함의 결과[11]와 유사하다. 결국 북한이탈주민

이 남한사회 적응하는 과정에서 사회, 경제, 문화적 차이로 발생하는 문제점은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워 시간을 두고 지속적인 중재가 필요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을 지속적으로 돕기 위해서 이들의 요구와 노력에 따른 다양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중재가 필요하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사회, 경제, 문화 등 각각의 전문영역에서 체계적인 중재 방안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네 번째 자아실현하기의 주체적인 삶은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를 찾으며, 자신이 주체가 되어 삶을 살게 되는 경험을 하였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삶에 대한 노력의지를 나타낸 결과[27]와 유사하다. 또한 새로운 현실에 맞지 않는 감정, 생각, 행동 등을 정리할 필요를 느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조직화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28]과 일맥상통한다. 새로운 정체성의 재조직화는 정체성의 변화와 확장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 내재화된 과거의 관계를 통합하고, 새로운 적절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제안하는 것[29]을 통해 남한사회에 적응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삶에 대한 정체성과 재조직화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북한이탈주민이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의도적 반추, 긍정적 자존감, 적응유연성이 나타난 결과[25]는 자신의 주체가 되어 삶을 살게 될 때 남한사회 적응을 더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은 자기만의 자아를 회복하여 정체성을 확립하고, 목표지향적인 적응을 통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만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것[16]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의 관점에서 남한사회 적응의 기초자료를 제시한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북한이탈주민의 일부를 선정하고, 연구가 수행되어 전체 북한이탈주민으로 확대 적용하고 해석하기에는 제한적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남한사회 적응에 대한 반복연구와 남한사회 적응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그들이 경험한 남한사회 적응 경험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

다. 그 결과 연구대상자는 탈북하여 남한사회로 와서 다른 세상을 마주하며 인간다운 삶을 알게 되고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남한사회 적응은 탈북과정에서의 외상과 북한에 남겨진 가족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이념, 체제 등 사회, 문화적 상황이 너무나 다른 남한사회에서 현실적인 다양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어 남한사회에서 남한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곁도는 삶을 경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점차 남한사회에서 남한사람으로 적응해가고, 더 나아가 남한사회에서 주체적인 삶을 통해 자아를 실현해가는 경험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일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에서의 적응을 이해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마련한 것으로 그 의미가 있다.

## References

- [1] S. E. Yu, K. J. Oh, A. S. Jeong, W. T. Jeon, "A qualitative study on North Korean refugees' attitude shifts-focusing on those in South Korean for three years",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6, no. 2, pp. 67-120, 2012.
- [2] J. K. Chung, J. A. Cho, "Issues in the integration education for North Korean refugees and South Korean hosts",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vol. 14, no. 1, pp. 487-518, 2008.
- [3] S. K. Min, W. T. Jeon, D. K. Kim, "Quality of life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vol. 45, no. 3, pp. 269-275, 2006.
- [4] H. S. Yoo, "A study on a strategy of empowerment for overcoming the North Korean refugees' feeling of powerlessness", *Trends and Prospects*, vol. 77, pp. 352-388, 2009.
- [5] M. K. Lee, "Prospects for North Korean Women's status after the economic difficulties by interviewing female defectors", *Family and Culture*, vol. 18, no. 1, pp. 33-55, 2006.
- [6] Y. S. Ha, "A study on the support policy and adapt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Kore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17, no. 1, pp. 125-141, 2009.
- [7] Y. H. Kim, W. T. Jeon, Y. A. Cho, "A study on the prevalence and the influencing factors of the mental health problems among recent migrant North Korean: a focus on 2007 entrants", *Unification Policy Studies*, vol. 19, no. 2, pp. 141-174, 2010.
- [8] J. M. Chae, J. N. Kim, "Relative deprivation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the influence of individual identity and social identity",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 18, no. 1, pp. 41-63, 2004.
- [9] Y. K. Chung, H. J. Kim, J. H. Choi, "The relationship between discrimination and social adaptation among North Korean refugees: mediating effects of self-support efficacy",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Kyungshung University*, vol. 31, no. 2, pp. 157-182, 2015.
- [10] H. K. Kim, "A qualitative study on contact experiences between North Korean defectors and South Korean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vol. 28, no. 2, pp. 529-562, 2016.
- [11] K. M. Kim, M. Y. Kim, "Adaptation experiences in South Korea of men defecting from North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43, no. 3, pp. 431-441, 2013.  
DOI: <https://doi.org/10.4040/jkan.2013.43.3.431>
- [12] E. K. Kim, S. J. Hur, "Toward reciprocity of acculturation: socio-psychological adjustment of North Korean refugee in South Korean", *Minjok Yeonku*, vol. 40, pp. 97-120, 2010.
- [13] J. A. Maxell, "Qualitative research design-an interactive approach", London: SAGA Publications, 1996.
- [14] M. Y. Lee, H. K. Kim, "Lived experience of overcoming migratory loss among North Korean refugee women who got married to South Korean ma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 35, no. 7, pp. 525-554, 2007.
- [15] G. C. Kim, "A study on North Korean defectors' adaptations to local community-focusing on North Korean women", *Korean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in Social Welfare*, vol. 9, no. 1, pp. 201-225, 2015.
- [16] H. C. Yeo, "A study on the adaptation to South Korea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focus in depth interview on North Korean defectors in age 40s", *Journal of East Asian Social Thoughts*, vol. 18, no. 3, pp. 325-359, 2015.
- [17] J. N. Kim, "A qualitative study on community adapt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wangju Women's University, Kwangju, 2013.
- [18] T. W. Eom, "A qualitative study on North Korean defectors as immigrant: beyond the boundary between survival and daily life",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vol. 18, no. 1, pp. 165-198, 2009.
- [19] S. K. Pyun, "A study on the social adap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to South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Christian University, Seoul, 2009.
- [20] P. F. Colaizzi,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s views i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R. S. Valle, M. King, Editors.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 [21] E. G. Guba, Y. S. Lincoln, "Fourth generation evaluation",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 1989.
- [22] J. S. Han, "A study on accultur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2, no. 11, pp. 5027-5033, 2011.  
DOI: <https://doi.org/10.5762/KAIS.2011.12.11.5027>
- [23] L. G. Calhoun, R. G. Tedeschi, "The foundation of

posttraumatic growth: an expanded framework”, N. J. Mahwah: Lawrence Erlbaum Associates; 2006. (L. G. Calhoun, R. G. Tedeschi, editors. Handbook of posttraumatic growth: research and practice).

- [24] W. T. Jeon, D. R. Yoon, J. S. Eom, “Survey results of adaptation and life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7, no. 1, pp. 155-208, 2003.
- [25] Y. A. Kim, M. Y. Kim, "Factors influencing posttraumatic growth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5, pp. 332-338, 2016. DOI: <https://doi.org/10.5762/KAIS.2016.17.5.332>
- [26] C. E. Agaibi, J. P. Wilson, "Trauma, PTSD, and resilience: a review of the literature", Trauma Violence & Abuse, vol. 6. no. 3, pp. 195-216, 2005.
- [27] M. N. Shin, "The study on the general awareness between South Korean and the displaced people from the North Korea", North Korean Studies, vol. 5, no. 2, pp. 119-143, 2009.
- [28] D. P. Schneller, "The immigrants' challenge: mourning the loss of homeland and adapting to the new world", Smith College Studies in Social Work, vol. 51, no. 2, pp.95-125, 1981.
- [29] O. Marlin, "Feeling toward the new and yearning for the old Crambury", NJ: Associated University Press; 1997. (P. H. Elovits, C. Kahn, editors. Immigrant experiences personal narrative and psychological analysis).

변은경(Eun-Kyun Byun)

[정회원]



- 2002년 8월 : 부산대학교 부산대학원 (간호학석사)
- 2006년 2월 : 부산대학교 부산대학원 (간호학박사)
- 2012년 3월 ~ 2013년 2월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전임강사
- 2013년 3월 ~ 현재 : 경남정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정신건강,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김미영(MiYoung Kim)

[종신회원]



- 2010년 2월 :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4년 8월 :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4년 9월 ~ 현재 :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정신재활, 정신건강증진